꽁트초대

사랑사슬

이 건 숙

198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양로원」이 당선
단편 / 「무거운짐」, 「구토」, 「옥비녀」,
「빛꾸러기」, 「엄마의 미움」,
「모래성」, 「처음사랑」 등
다수 발표
수필집 / 「돌하나도 돌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올해 서른 살이고 결혼 5주년을 맞는 그녀의 이름은 나보드레라고 한다. 세살, 네살이 된 두 아들이 있고 남편은 교통순경이다.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그런 남편을 둔 여자는 적어도 세 돈쭝의 금목걸이와 캐러트가 형편없는 실다이어 반지 정도는 끼고 있으리라 생각들을 한다. 그런데 그녀의 경우는 목걸이는 커녕 반돈짜리 금반지도 없다. 더 나아가 시집올 적 입었던 폭 넓은 치마를 뜯어서 자신의 윗옷을 만들어 입어야 할 상황이고 그 자투리로 아이들의 바지를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 머리를 갸웃둥이며 앉아 있어야 하는 처지다.

이런 삶은 그녀가 만들어 낸 궁상이라고 친정식구들이나 친구들이 입방아를 찧고 심지어는 멍텅구리라고 머리를 쥐어박기도 한다.

그리고 보면 그녀의 이런 궁상은 그녀의 이름에서 기인된 것이 틀림없다. 국어선생인 친정아버지는 우리 말을 끔찍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만약 그녀가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개똥이니 쇠똥이니 하는 이름을 서슴없이 붙였으련만 딸이라 그나마 보드레란 이름을 준 것이다. 그녀의 언니는 나비고 여동생은 나하나이니 그들에 비하면 그래도 시적인 무드가 있는 나 보드레란 이름을 보드레여사가 불평할 의사는 추호도 없다.

단지 그 이름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그녀가 보드랍고 너그럽고 수더분하고 두리뭉수리이기를 지나치게 기대한다는 점이다.

그런 보드레 역할은 시집 오기 전엔 깜찍하리만큼 잘 감당했었기에 그녀는 어디 가서나 인기였다.

"넌 아무튼 타고난 사랑의 여인이야. 이 선물 고마워."

"난 말이야. 시시하게 돈 가지고 비싼 것 사서 주고 과시하는 것이 싫어. 사랑하는 사람에겐 정성과 시간이 바쳐져야 한다고 봐."

"네 아버지가 어쩜 그렇게 이름을 잘 지었니. 넌 정말 보드레다워."

보드레가 피아노 잘 치고 가정이 부유해서 인기가 있는 짝꿍에게 한달이나 정성 들여 수를 놓은 수건을 선물했을 때 그 친구는 기절할 듯이 입에 침거품을 물고 흥분했었다. 손수건 한장에 찬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주위에 갖고 있는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었다. 그래서 보드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일들을 골라서 했고 또 그런 일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찬사를 듣는데 익숙해 있었다. 지금의 남편도 그런 보드레의 보드라운 성품에 반해서 그녀를 사랑했고 결혼까지 골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보드레가 이 집에 시집와서부터 이상하게 그 성품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 터진 사건만해도 보드레로서는 진심으로 보드라울 수 없는 거센 마음의 파도를 일으켰다. 닷새 전부터 시아버지가 요구해 온 돈문제는 그녀에게 골이 아프다 못해 이젠 입에서 단내가 날 지경이다. 강요된 사랑이란 이성간에도 기분 나쁜 법인데 일년에도 몇건씩 사건을 만들어서 사랑을 요구하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 감당할 수 있는 희생이 따라야 사랑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시아버지는 오늘도 아주 명령조로 손을 내미셨다.

"아가, 돈이 마련됐느냐? 이 겨울엔 추워서 작년처럼 지내라면 겁이난다. 니 시어머니 나이도 생각해야지. 오밤중에 연탄 갈러 일어나서 뒤란으로 가기가 그리 쉽지 않단다. 하필이면 아궁이가 북풍이 지나가는 곳에 있어 그런다. 아파트처럼 보일러로 고치려면 사십팔만 오천 원이 든다는 구나. 이번에 한번만 손을 대면 이제 우리 나이도 이러니 세상 다 산 것이 아니냐. 너희 부부도 우리 장례식에 눈물 흘리지 않으려면 이번에 아주 큰 마음 먹고 손을 봐다오."

"재작년에 새마을 보일러로 바꿨는데 또 고치려고 그러세요."

"더운 물을 쓸 수가 있어야지."

"저희가 은행인 줄 아세요. 그까짓 쥐꼬리만 월급 받아서 저희 네 식구도 살아야지요. 부모님 생활비 대야지요, 시동생 대학 등록금 대느라고 빚 얻어댄 것 갚아야지 정신이 없어요. 사실 꽁치 한 마리 마음 놓고 사먹질 못하는데 사십팔만 오천 원은 너무 힘들어요."

"교통 순경이 월급 가지고 사는 것 봤느냐?"

"어머머! 아버님은 아드님이 부정을 저지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야 지난 사년간 느이네가 어떻게 민식이 대학 등록금을 댔겠느냐."

그 말에 보드레는 콧등이 아리해오더니 눈물이 왈

칵 쏟아졌다. 세상에 이럴 수가. 그 흔한 냉장고티 샤쓰가 입고 싶어도 시장에 나가 수십 번 만지작이며 돌아섰는데. 이럴 수가. 아이들의 바지도 언니네서 조카들 입던 헌것을 얻어다 기워 입히며 아픈 마음을 눌러서 시동생 등록금을 댔더니 이제 저런 서러운 말씀을 하시다니.

"아가, 내 말이 맞지야. 추석이 지나기 전에 어이 돈을 구해와라."

"삼촌이 이제 저희 보다 더 돈을 많이 버니 이번엔 거기서 구해 쓰세요."

"말마라. 걔네는 금년에 결혼해서 신접살림 차리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도와줘야 할 형편이다."

"그럼 저흰 뭐예요. 날마다 뜯기면서 살란 말이예요."

보드레는 수화기를 꽝 소리가 나게 내려놓고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다. 아무래도 내 남편은 친 자식이 아닌가봐. 그럴수가 없어. 너무 잔인하단 말이야. 사랑은 내려가는 것이라는데 이건 위로 아래로 팔방춤을 춰야되니 이건 너무했어. 이 집안 뿌리가 충청북도 문경새재라 도무지 고리타분하고 편견이 심하단 말이야. 장남이 뭐 돈 만드는 기계인 줄 아나봐.

보드레는 아이들 저녁을 라면으로 먹이고 부윰하니 흐려오는 방에 앉아 불켜는 것도 잊고 분을 사기느라고 식식거렸다.

유년의 숲에서 받고 베풀었던 사랑은 얼마나 짜릿했던가. 예쁜 수첩을 선물하면 그 다음날 다정한 웃음으로 되돌아오거나 엇비슷한 선물을 받았고 그렇게 받은 선물에 감격해서 그 친구를 사랑한 것이 너무 사랑스러워 사랑을 사랑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숲은 정말로 감미로운 곳이었다. 그 시절 사랑의 저울은 얼마나 예민했던지 티끌을 올려놔도 휘청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서른 고개에 올라선 그녀의 사랑 저울은 평형을 잃고 제 기능조차 발휘하질 못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건 순전히 이 집에 시집와서 생긴 병이 분명했다. 도대체 이 집의 사랑 저울은 평형을 잃고 오로지 올려놓으라고만 하니 주기만 하는 사랑은 한두 번은 해낼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번뇌가 따르기 마련인가 보다. 물건으로 꼭 사랑 교환을 하자는 건 절대아니다. 단 한마디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 한 마디도 받아내지 못하고 주기만하는 사랑의 고통은 아무리 보드레지만 이겨낼 재간이 없었다. 시부

모의 사랑 저울은 집더미가 올라가도 꿈쩍 안하는데다가 시동생도 시한부이긴 하지만 작은 아파트만한 무게를 앗아만 갔지 티끌도 돌려준 적이 없지 아니한가.

"여보, 뭣하고 있어, 불도 안 켜고. 아이들은 골목에서 난장판이고 이거 야단났네."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난 이 집에 시집와서 너무 손해를 많이 봤단 말이예요."

"또 시집 식구들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을 모양이군."

"전 끝없이 주는 사랑을 견디어 낼만한 여자가 못돼요."

"그럼 이혼하자 이 말인가."

"흥!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런 사랑 베풀 수 있는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줄 아셨어요. 주기만 하는 사랑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단 말이예요."

"여보 날 괴롭히지 마. 난들 어떻게 하겠어. 이러는 당신보다 나는 두 배나 괴롭단 말이야. 나라고 처

자식 먼저 생각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아. 장남이란 것은 어차피 먹이로 걸려들게 된 걸 어쩌겠어."

"아! 당신이 너무 불쌍해요."

보드레는 남편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러는 아내를 다정하게 보듬어 안아주며 지쳐 돌아온 남편은 그녀의 이마 위에 어지러히 흩어진 머리를 쓸어 올려 주었다.

"어!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걸 가져왔어. 이걸 받으면 당신 얼굴이 확 펴질거야."

보드레의 무릎위에 묵직한 돈봉투가 떨어졌다. 그녀는 놀라서 남편을 올려봤고 그는 기사처럼 으시대며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아내의 눈길을 받았다.

"여보, 설마 당신 남들이 흔히 말하는 그 나쁜 짓을 저지른건 아니겠지요. 택시 기사들을 잡아서 슬그머니 돈을 울근 것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렇다면 어서 이 부정한 돈을 돌려줘요. 여직 전 당신의 월급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왔어요. 이제와서 시부모 방 수리하자고 그런 돈을 받을 수 없단 말이예요."

보드레는 죽은 쥐새끼라도 만지는 듯 그 돈봉투를 집어 남편에게 던졌다.

"받을 만한 곳에서 받은 것이니 걱정하지마. 당신은 요즘 너무 과민해서 걱정이야. 시동생 공부 다 시켰고 이제 부모님 따뜻하게 지낼 난방시설 해드리면 더 뜯길 것도 없으니 참아요."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당신 식구들에게서 받았다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을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어디서 뭘 받겠다는거요."

남편이 준 오십만 원은 시부모님이 원하는 것보다 만 오천 원이 많은 액수였다. 그 남은 돈을 들고나가 아이들이 읽을 책을 마음 놓고 사주려고 보드레는 청계천 5가의 헌책가게를 반나절이나 돌았다. 그러나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책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햇밤 두 말이었다. 보드레의 기질이 아직도 그 여력을 과시한 것이다. 받는 것에 익은 사람들은 받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법이다. 보드레가 가져온 밤을 챙기는 시어머니 옆에서 시아버지는 사십팔만 오천 원을 세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어느 동창이 이런 말을 하며 한숨을 쉰 적이 있었다. 한 지붕 밑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은 天刑이라고. 그러나 보드레는 돈을 드리면 고만이지 천형까지 간 것은 아니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시댁을 다녀온 다음날 시동생이 오랜만에 찾아왔다. 그것도 밤을 한 말이나 사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섰다.

"어쩐 밤이예요."

보드레는 입이 함지박만하게 벌려지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다. 이제 드디어 이 집에 시집와서 처음으로 받는 입장에 서보게 되니 그야말로 감개무량했다.

"햇밤이 어찌 탐스러운지 조카들 생각이 나질 않겠어요."

보드레는 시동생이 사온 밤을 감격해서 받아 안고 부엌으로 갔다. 이럴 수가! 그 밤은 어제 보드레가 사간 그 밤이 아닌가. 두 말 중에 한 말이 어느새 막내 아들네로 가서 그것이 다시 그 밤을 사간 집으로 되돌아오다니 참 기찬 노릇이었다. 그것도 어제 싸들고간 똑같은 상호가 그려진 그 비닐 봉지에 넣어진 채 말이다. 그녀는 거실에서 우렁우렁 조카들과 떠드는 시동생의 음성을 들으며 어제 헌책 가게에서 훔쳐본 바다와 강의 먹이사슬 도표를 떠올리며 빙긋 웃었다. ■